

‘르로’는 조사 ‘로’의 이형태인가?*

이 현 희**

[초 록]

현대 한국어의 ‘거’는 결코 명사 ‘것’에서 직접 줄어든 것이 아니다. ‘X시’의 구조에서 ‘X이’가 되는 어중 ‘ㅅ’ 탈락 규칙에 의해 ‘거시’가 ‘거이’가 되고 다시 재분석에 의하여 ‘거’가 석출된 것이다. 이 ‘ㅅ’ 탈락 규칙은 ‘마시~마이’[飮] 같은 어휘 형태소와 ‘-십시다~입시다’ 같은 문법 형태소에 두루 적용되던 것이었다. ‘거’가 재분석된 다음, ‘나, 너, 저, 누, 이, 그, 더’ 등의 1음절짜리 대명사에 문법 형태소가 통합할 때 ‘르’이 덧붙던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에서처럼 현대 한국어의 ‘거’와 그와 동일한 규칙에 의하여 형성된 ‘뭉’ 및 ‘무어’에도 ‘르’ 덧붙기 규칙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덧붙은 이 ‘르’은 조사의 일부가 아니라 어휘화된 어간의 일부로 인식되어 ‘르’ 말음 어간과 동일한 음운론적인 행동을 보였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어중 ‘ㅅ’ 탈락 규칙, 재분석, ‘르’ 덧붙기 규칙, 어휘화, ‘르’ 말음 어간
Word-medial ‘s’ Deletion Rule, Reanalysis, Lexicalize, ‘r’ Addition Rule, ‘r’
Final Stems

1. 들어가기

이 글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통합형 ‘날로’[我], ‘일로’[此] 등과 동일한 통합 양상을 보이는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통합형 ‘걸로’[物, 事], ‘뭘로’[捨] 등에 들어 있는 ‘ㄹ’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매우 미시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 어형들이 매우 중대한 문법 사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에서 1음절짜리 대명사 ‘나, 너, 저, 누, 이, 그, 더’ 등에 조사가 통합할 때 ‘날대로, 널라와, 절로, 놀만, 일록, 글란, 덜와’ 등에서처럼 ‘ㄹ’이 더 나타나기도 함, 즉 ‘ㄹ’이 덧붙기도 함¹⁾은 이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ㄹ’ 덧붙음 현상은 역으로 ‘대로, 라와, 로, 만, 록, 란, 와’ 등이 문법 형태소임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기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부사격 조사 ‘로’의 이형태로 ‘로’와 ‘으로’ 외에 ‘ㄹ로’를 더 들고 있다. “‘거’, ‘무어’, ‘뭇’의 뒤에 쓰여,”라는 환경을 제시하고도 있는바, 대표적으로 ‘걸로’는 “의존 명사 ‘거’에 부사격 조사 ‘ㄹ로’가 붙은 말. ‘것으로’의 구어적 표현이다.”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사 통합 과정에서 덧붙은 ‘ㄹ’을 조사의 일부라고 파악한 일은 후술될 바와 같이 이미 고어사전류에서도 보이던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날로’와 ‘걸로’의 ‘ㄹ’이 ① 문법 형태소 ‘로’의 두음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휘 형태소 ‘나’[我]와 ‘거’[物, 事]의 쌍형어간²⁾

1) 허웅(1975, 1989), 이현희(2010)에서는 ‘덧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덧나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못 다루어 상태가 더 나빠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도 어감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덧붙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쌍형어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나’ 및 ‘거’와 ‘날’ 및 ‘걸’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고 중복적 분포를

‘날’과 ‘갈’의 말음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해 보며, ② ‘것’이 어떻게 해서 대명사처럼 인식되어 ‘걸로’와 같은 어형을 형성하게 된 것인지 언중들의 언어 의식을 생각해 보고, ③ 이미 고광모(2016, pp. 70-72)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거’가 결코 ‘것’에서 직접 줄어든 형식인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과정이 더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③ → ② → ①을 해명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2. ‘거’의 석출과 ‘걸로’의 출현

현대 한국어의 사전류나 문법서 혹은 연구논문들에서는 ‘거’를 ‘것’에서 줄어든 형식(즉, 음절말음 ‘ㅅ’이 탈락한 형식)인 것으로 파악해 왔다. 이때, ‘거’의 주격형 ‘게’와 대격형 ‘걸로’의 존재가 문제시되었다.³⁾

대표적으로 현대의 사전류만 들어 보자면, 표제항 ‘거’에 대하여,

- (1) ㄱ.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 ㄴ. ‘것’의 구어적 표현(고려대한국어대사전).
- ㄷ. ‘것’의 준말(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X시’의 구조를 보이던 것이 ‘X이’로 변화화기도 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 방언에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하여는 이미 고광모(2016, pp. 70-72)에서 포괄적으로 관찰되어 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최근의 논의로는 오규환(2018)을 들 수 있다. 그 논문에서는 ‘것/거’로 표기하면서 쌍형어로 파악하였다.

우 설득력 있게 설명된 바 있다. ‘가시나 > 가이나, 머시매 > 머이매, 마사- > 마아’ 등의 어휘 형태소와 ‘-(으)십시오 > -(으)이씨요, -(으)십시다 > -(으)입시다’ 등의 문법 형태소에 두루 나타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것이’나 ‘것이라’ 등 명사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형⁴⁾도 ‘(먹은) 거이’ 및 ‘(먹은) 게’(주격형)나 ‘(먹은) 거이라’ 및 ‘(먹은) 게라’(계사 통합형)가 될 수 있다.⁵⁾

- (2) ㄱ. 출향이라 흐는 거이 기싱인 게 아니오라 퇴기 월믹 쫓이온
딕(신재효판소리사설 1: 34)
- ㄴ. 상이 반다시 이상이 여기서 특별니 스흔흐실 거이니 초쇼
위 성의 권되라(숙영낭자전, 경판16장본, 고소설판각본전
집 2: 33)
- (3) ㄱ. 형제와 숙질의게 욕심 느는 게 잇스면 댜워흐고(삼성훈
경 22)
- ㄴ. 딕신희야 부르시딕 그 부르심이 다 뵈 게 된지라(성경직
해 44)
- ㄷ. 베푸는 스름은 신령의 보필이오 [도아 주시는 게라] 법을
밧드난 데즈드라(삼성훈경, 三聖교유문 1)

이 주격형이나 계사 통합형에서 다시 재분석에 의해 어간 ‘거’가 석출되어 나온다. 그리하여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먹은) 거가’나 ‘(먹은) 지를’ 등의 조사 통합형도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코 단독형 ‘것’ 자체에

4) ‘것이’, ‘거이’의 문제도 이미 고광모(2016)에 언급되어 있어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에 밝혀 사의를 표한다.

5) 이현희(1995, p. 61)에서는 계사 앞에서의 ‘스’ 탈락 현상만 언급되었는데, 주격형에서는 그보다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대의 방언에서는 ‘게’가 ‘기’로, ‘게라’가 ‘기라’로 실현되어 나오기도 한다. 대명사의 조사 통합형 ‘네, 제’가 ‘니, 지’로 실현되는 것과 동궤의 현상이다. ‘니, 지’는 단독형인 것으로 파악되어 주격형이나 속격형 외에 ‘니를, 지를’ 등과 같이 다른 격조사가 통합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는 단독형으로 인식되지는 못하였다는 차이를 보인다.

서 ‘ㅅ’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것이’의 구조 속에서 ‘ㅅ’ 탈락을 경험한 뒤 다시 ‘거’가 석출되어 나온 것임을 강조해 둔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ㄱ’ 덧붙음 현상을 더 경험한 것이 ‘(먹은) 걸로’, ‘그걸로’ 등의 어형이다.

- (4) ㄱ. 法律을 對比 計較호야 其 性質 異同을 辨別호 걸로 法律原理를 探究호라는 主意호는 學派라(대조선독립협회회보 203: 2)
- 나. 가랑 칠만 오천원씩 매년에 슈납되논 걸로 학교 삼씩 오십 터논 빅설홀 터이니(독립신문 7203)
- 다. 왕의 덕병이 호 번 임호면 그 형세 천근 되는 걸로 한낱 식알을 누르미니(고대 초한전쟁실기,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15권, 50)
- 리. 주머니 구석에 엮전 한 푼 잇든 걸로 칠간안 병문 모주 씨기나 한 그릇 어더 먹자(악부 下 2: 388)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은 ‘거’는 의존 명사인데, 어째서 ‘걸로’에서처럼 ‘ㄱ’ 덧붙음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것이’ 구조가 ‘거이’ 및 ‘게’로 실현된 것은 19세기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 pp. 69-72)에서는 ‘것’을 명사로 파악하지 않고 ‘대임’(즉, 대명사)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⁶⁾ 이 현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19세기 조선인들은 ‘거’를 대명사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날로, 일로’ 등과 같은 ‘ㄱ’ 덧붙음 현상을 경험하게 한

6) 김영희(1984, pp. 62-63)에서는 ‘것, 바, 이’는 대명사가 아니라 “실질 명사이되 내포 의미가 극히 적은 반면 외연 의미가 매우 큰 포괄 명사(이를 형식 명사라고도 부른다)이다.”라고 하면서 주시경의 대명사설을 비판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것’은 “사물”의 의미 외에 “사태”의 의미와 “사람”의 의미를 더 가지게 되었음에 비해, ‘이’는 “사람”의 의미, “사물”의 의미, “사태”의 의미에서 “사람”의 의미로 축소되어 왔음이 대조된다.

것으로 생각된다.⁷⁾ 그러나 ‘그걸로, 판걸로’ 등에도 ‘ㄹ’ 덧붙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ㄹ’을 대명사라고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⁸⁾

19세기 들어 ‘것이’, ‘무엇이’, ‘뭇이’가 어종의 ‘ㅅ’을 탈락시키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 ‘걸로’, ‘무얼로’, ‘뭇로’ 등의 새로운 어형들을 형성하게 되었음에 비하여, ‘날로, 널로, 놀로, 일로, 글로, 덜로’ 등은 현대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고 단지 재귀대명사의 통합형 ‘절로’만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휘화한 부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3. ‘덧붙은 ㄹ’의 소속

1음절짜리 대명사인 어휘 형태소 Lm과 문법 형태소인 조사 Gm이 통합하여 형성된 통합체 [LmGm]를 다시 분석하는 절차는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통합 과정에 ‘ㄹ’이 덧붙어 형성된 통합체 [Lm ㄹGm]는 형태소 분석이 쉽지 않다. ‘ㄹ’을 독립된 존재로 분석해 낸다 하더라도 그 통사 범주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도 불투명하다. 말하자면, 통합의 과정에서는 (그 정체는 아직 모르나) 아무튼 ‘ㄹ’이 덧붙는다고 표현해 볼 수 있지만, 분석의 과정에서는 ‘ㄹ’을 어휘 형태소의 일부라고 해야 할지, 문법 형태소의 일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3의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다.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에서는 1인칭 대명사 ‘나’의 조사 통합형이

7) ‘므스것’에서 변화해 온 ‘무엇’과 ‘뭇’도 위와 같은 현상을 경험한다. ‘무엇이’가 ‘무어이’(더 나아가 ‘무에’)로 변화하고 ‘뭇이’가 ‘뭇이’(더 나아가 ‘뭇’)로 변화한 것이다. ‘뭇로’와 ‘무얼로’ 역시 ‘걸로’와 동일한 해석을 받을 수 있다. ‘무얼로’의 ‘무어’는 2음절짜리 대명사인 데 ‘ㄹ’ 덧붙음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특이하다. ‘뭇로’가 먼저 형성되고, ‘무얼로’에도 유추적 확장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8)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깊이 궁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날로, 날와’ 등의 어형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⁹⁾ 어휘 형태소 ‘나’와 문법 형태소 ‘와’¹⁰⁾가 통합하면, 중세 한국어에서의 통합체는 ‘나와’가 되든지 ‘날와’가 된다. 그러나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과’가 통합하여 ‘나과’와 ‘날과’로 실현되어 나오기도 한다. 이 ‘나와’와 ‘나과’에서는 어휘 형태소 ‘나’와 조사 ‘와’ 및 ‘과’의 분석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날와’와 ‘날과’에서는 ① ‘나’와 ‘ㄹ와’ 및 ‘ㄹ과’로 분석해야 할지, ② ‘날’과 ‘와’ 및 ‘과’로 분석해야 할지, ③ ‘나’, ‘ㄹ’, 그리고 ‘와’ 및 ‘과’로 분석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미 고어사전류에도 부분적으로 이 ‘ㄹ’ 덧붙음 현상과 관련된 표제항 및 예문들이 있어 흥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조어사전』에서는 조사 표제항으로 ‘ㄹ라와, ㄹ란, ㄹ러는, ㄹ로, ㄹ로써, ㄹ록, ㄹ만, ㄹ와, ㄹ을’ 등을 등재하여 ‘ㄹ’을 조사의 일부인 것으로 처리하였다.¹¹⁾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에서는 ‘나’와 ‘날’을 다 표제항으로 등재하였는데, ‘날’의 예문으로 ‘날와, 날로, 날록, 날러는’ 등을 들었다. 조사 표제항으로 ‘ㄹ을’(예문은 ‘날을’)을 등재한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표제항 ‘나’ 아래에 ‘날와, 날로, 날록, 날러는’ 등의 예

9) 1인칭 대명사 ‘나’의 조사 통합형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는 이미 이현희(2011)에서 언급된 바 있다. 기초강연 요지문으로만 존재하지 문자화되어 연구논문으로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언급되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음을 밝혀 둔다.

10) ‘와’는 기본 형태소 ‘과’의 이형태인바, 중세 한국어에서는 순수 모음이나 음절 부음 y, 그리고 ‘ㄹ’ 뒤에서 ‘ㄱ’ 약화 규칙이 적용되어 ‘와’로 실현되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근대 한국어 단계에서는 이 ‘ㄱ’ 약화 규칙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 ‘와’로 실현되기도 하고 ‘과’로 실현되기도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순수 모음과 음절 부음 y 뒤에서만 이형태 ‘와’가 실현되는 것으로 규칙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11) 그러나 표제항 ‘나’의 예문에 ‘날러는, 날로, 날록, 날와’ 등을 포함시켜 조사 표제항과 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를 실었다. 그런데 ‘날러는’과 ‘날을’은 표제항으로 등재되었고, ‘르난, 르라와’ 등도 표제항으로 등재되었다. 덧붙은 ‘ㄹ’의 처리가 매우 고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크게 보아 ① ‘나’와 ‘날’을 다 표제항으로 삼는 태도와 ② ‘을’과 ‘르을’을 다 표제항으로 삼는 태도가 착종되어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르와’의 ‘와’는 ‘과’의 이형태이기 때문에 연철(이어적기)되지 않음이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르을’을 하나의 표제항으로 삼을 때에는 그 근거가 분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 표제항 ‘르을’은 대개 ‘날을’의 예와 관련하여 설정되었다. ‘날을’을 과잉 분철로 파악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익섭(1992, p. 229)와 송철의 외(2006, p. 726)을 들 수 있다. ‘나를, 나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날을’이나 ‘날을’을 과잉 분철로 파악하였는지 모르나, ‘날은’(어제자성편언해 외편 10; 후수호전 7: 44)이나 ‘날의서’(고문백선 3: 54), ‘날으란’(가곡원류 504), ‘날을란’(악부 下 2, 行實不正歌) 등의 존재 때문에 과잉 분철이라는 견해는 힘을 얻기 힘들다. 또한 이런 예들을 통하여 ‘ㄹ’을 조사 ‘은, 의서, 으란, 을란’ 등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기 힘들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던 ‘나’의 대격형의 성조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날’(R)과 ‘나를’(RH)의 제1음절은 다 상성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ㄹ’이 덧붙은 ‘날’은 대격 조사 통합형 ‘날’과 동일하게 상성(R)의 성조로 실현된다.¹²⁾

(5) 중세 한국어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날’의 예들

- ㄱ. ‘날로’(RH, 능엄경언해 2: 46), ‘날록’(RH, 두시언해 초간본 20: 6)
- ㄴ. ‘날와’(RH, 석보상절 13: 25)

12) ‘누’의 대격형 ‘눌’(R, 월인석보 8: 101) 및 ‘누를’(RH, 능엄경언해 3: 40), ‘누를’(RH, 월인석보 7: 54-2) 및 ‘눌을’(RH, 소학언해 6: 58)의 성조형도 참조된다.

ㄷ. ‘날만’(RL,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 6)¹³⁾

ㄹ. ‘날웃’(RH, 월인석보 20: 111)¹⁴⁾

ㄹ. ‘날을’(RH, 소학언해 2: 17), ‘날을’(RH, 소학언해 5: 25)

대격형 ‘날’의 성조와 ‘날X’의 ‘날’이 동일한 성조형을 가진다는 사실은 매우 많은 것을 암시해 준다.

이제 우리는 ‘나’ 외에 ‘날’도 어간이라는 관점에 서 보기로 한다. 임석규(2002)는 주격형이나 계사 통합형을 바탕으로 한 명사 어간의 재구조화를 포괄적으로 다룬 바 있고 오규환(2018)에서도 ‘것’의 주격형과 계사 통합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¹⁵⁾ ‘나하’[年, 歲]의 주격형이 재구조화¹⁶⁾하여 현대어의 ‘나이’에 이르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우리가 앞에서 ‘ㄹ’ 덧붙임 현상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은 대격 조사 통합형의 어휘화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나’의 대격형 ‘날, 나를, 나를’ 가운데 가장 고형은 ‘날’이다.¹⁷⁾ 이 대격

13) 허웅(1989, p. 88)에서는 ‘-을만’으로 파악하였다. 15세기의 ‘만’은 용언의 관형사형에 붙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형식명사로 파악하였으나 허웅(1975, p. 283, pp. 285-287), 16세기에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붙는 일이 없으므로 견줄토씨(비교격 조사)로 다룬다는 것이다. ‘-을만’에 매개모음을 더 넣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4) ‘날웃’은 현재로서는 한 예만 보인다. 주로 ‘나웃’(LH, 월인석보 20: 117)으로 나타난다. 하귀녀(2004, p. 187)에서는 ‘날웃’의 ‘ㄹ’을 대격 조사로 파악하여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ㄹ七’과 동형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5) 그러나 오규환(2018, p. 192)의 예문 (3)에 든 ‘계’의 예들은 ‘그어긔, 거긔, 그예’와 더불어 언급될 ‘계’이지 ‘것’의 주격형 ‘거시’에서 ‘ㅅ’이 탈락한 것이 아니다. 204면에서 든 예문 (13)의 ‘므스계’ 역시 ‘므스것 ~ 므스거’와 관련된 예들이 아니라 대명사 ‘므스’의 처격형이다. ‘므스기, 므스글’ 등과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16)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보다 ‘어휘화’라고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원래 ‘A (어휘 형태소) + a (문법 형태소)’의 통합형이었던 것이 시간이 흘러 ‘Aa’만 사용되고 ‘A’는 사용되지 않을 때 ‘Aa’가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A’와 ‘Aa’가 공시적으로 다 사용될 때에는 ‘Aa’가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 주제의 어형 ‘난, 나느, 나느’에 대하여도 동궐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형 ‘날’이 어휘화하여 어간으로 굳어져서 단독형 ‘나’와 쌍형어를 이루었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송철의 외(2006, p. 656)에서는 어간 ‘나~날’의 교체 현상으로 파악한 바 있다. 사실상 단독형 ‘나’와 ‘날’은 중복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교체라는 용어로 아우르기 힘든 국면이 없지 않다. 우리는 대명사 ‘나, 너, 저, 누, 이, 그, 더’ 외에 어휘화한 ‘날, 널, 절, 놀, 일, 글, 덜’ 등이 조사와 통합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이 어휘화한 ‘날, 널’ 등은 ‘ㄹ’ 말음 명사가 되어 ‘말’[言]과 동계의 패러다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말을, 말은, 말란, 말으란, 말을란¹⁸⁾’ 등의 조사 통합형은 ‘날을, 날은, 날란, 날으란, 날을란’ 등의 조사 통합형과 평행성을 보인다.

4. 나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작은 글에서 ‘거로’ 및 ‘걸로’와 관련된 몇 가지 미시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았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행해진 조각들을 모아 이 글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하였다.

‘거시’라는 구조에서 ‘거이’(및 ‘계’)가 나오고, ‘거이’에서 재분석되어 ‘거’가 석출되어 나왔음을 살폈다. 19세기 후반의 언중들은 이 ‘거’에 조사 ‘로’를 통합한 어형을 ‘거로’로 사용하기도 하고, ‘거’를 대명사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미 소멸해 가고 있었던 ‘날로, 널로, 절로, 놀로’ 등의 조사 통합형에 유추된 ‘걸로’를 형성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것’에

18)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ㄹ’ 말음 명사 뒤에서 2음절짜리 조사의 두음 위치에 있는 매개모음이 탈락하지 않는 예들이 간혹 보인다. 중세 한국어의 ‘詳은 조스^ㄹ된 말란 子細히 다 쓸 씨라’(월인석보 1, 석보상절 서 4) 외에, ‘입으로 니르는 말으란 결연히 허하야 듣디 말라’(병학지남 1), ‘쫓 병 도흐며 오래 살 말을란 브디 니르디 말라’(염불보권문 해인사판 38) 등의 예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 직접 ‘거’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거시’의 구조에서 형성된 ‘거이’(및 ‘계’)라는 중간 단계가 더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준 고광모(2016)의 논의를 특기하고 싶다.

‘걸로’의 ‘걸’은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의 ‘날로, 날을, 날은, 날란’[我] 등의 ‘날’과 같이 어휘화한 ‘ㄹ’ 말음 어간이라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런 관계로 이제 우리는 ‘ㄹ’ 덧붙임 현상이라는 용어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한층 더 정밀한 관찰과 기술이 행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 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인터넷판).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주)교학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인터넷판).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이희자 · 이종희(2010), 『어미 · 조사 사전(한국어학습 전문가용)』, 한국문화사.
한글 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어문각.
홍운표 · 송기중 · 정광 · 송철의 편(1995),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논 제】

- 고광모(2016),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으)비사’의 발달: {-습사-}의 형성과 ‘-(으)비사’에 이른 변화」, 『언어학』 76, pp. 57-85.
김영희(19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 pp. 31-63.
김정주(2014), 「명사 ‘것’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주채(2017), 「교체의 개념과 조건」, 『국어학』 81, pp. 295-324.
소신애(2019), 「음운변화의 흔적에 대하여: $\Delta > \emptyset$ 를 중심으로」, 『국어학』 89, pp. 95-130.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pp. 273-290.
송철의 · 이현희 · 장윤희 · 황문환(2006), 『역주 오류행실도』, 서울대학교출판부.
엄상혁(2018), 「한국어의 재분석에 의한 단어 형성」, 『한국어학』 81, pp. 197-244.
오규환(2018), 「의존 명사 ‘것/거’의 조사 결합형과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87, pp. 185-210.
이금희(2013), 「중결어미 ‘-(으)ㄴ걸’, ‘-는걸’과 ‘-(으)ㄹ걸’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42, pp. 111-139.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지영(2017), 「‘-은걸’과 ‘-을걸’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의미학』 57, pp. 21-48.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pp. 57-81.
- _____(2009), 「‘조초’의 문법사」, 『진단학보』 107, pp. 129-175.
- _____(2010), 「‘채’와 ‘째’의 통시적 문법」, 『규장각』 36, pp. 73-134.
- _____(2011), 「‘날X’의 통시론」(기조강연),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82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85-100.
- 임석규(2002),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국용어간의 재구조화」, 『형태론』 4 (2), pp. 319-338.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최형강(2007), 「‘-르게’와 ‘-ㄴ게’의 융합 양상과 의미 기능」, 『한국어학』 34, pp. 337-368.
- 하귀녀(2004), 「보조사 ‘-곳/웃’과 ‘-ㄹ게」, 『국어학』 43, pp. 181-208.
- _____(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_____(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원고 접수일: 2019년 8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9년 8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9년 8월 26일

ABSTRACT

Is ‘rro’ the Allomorph of Case Marker ‘ro’?

Lee, Hyeon-hie*

‘ke’ of Present Day Korean is never directly reduced from ‘kes’. ‘ke’ has been reanalysed from ‘kei’, the result that the word-medial /s/-deletion rule was applied to ‘kesi’. The word-medial /s/-deletion rule that changes ‘Xsi’ to ‘Xi’ was widely applied to both lexical morphemes such as ‘masi~mai-’ ‘to drink’ and grammatical morphemes such as ‘-sipsida~ip-sida’. After ‘ke’ has been reanalysed, the ‘r’-addition rule of Middle and Early Modern Korean, that ‘r’ is added when grammatical morphemes combine to one syllable pronouns such as ‘na, ne, ce, nwu, ku, tye’, is applied to ‘ke’, ‘mwe’ and ‘mue’ in Present Day Korean. As the added ‘r’ was recognized as a part of the stem, not of the case marker, lexicalized.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